시그니엘 서울, 키위 컬렉션 어워즈 '최고의 고메호텔'

서울 잠실 시그니엘 서울은 키위 컬렉션이 주관하는 '2022 키위 컬렉션 호텔 어워즈'에서 '최고의 고메 호텔'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키위 컬렉션은 비자카드의 글로벌 호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그니엘 서울은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야닉 알레노가 총괄하는 메인 레스토랑 스테이를 비롯해 6년 연속 미슐랭 1스타를 받은 한식당 비채나, 국내 최다 샴페인 컬렉션의 바81 등이 있다.

롯데, 미니스톱 인수…편의점 3강 체제 굳히기

롯데가 편의점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롯데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CU·GS25와 함께 '편의점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미니스톱 서울 마포센터점(왼쪽)과 세븐일레븐 서울 한남 UN점.
사진제공 | 미니스톱·세븐일레븐

2603개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된다

롯데가 국내 편의점 업계 5위인 미니스톱을 품었다. 롯데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업계 3위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흡수할 전망으로 1위 CU, 2위 GS25와 확고한 3강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 韓미니스톱 지분 100% 인수
우수 입지·타사 대비 넓은 면적 강점
1, 2위 CU·GS25와 점포 수 격차↓
물류센터 활용한 즉시배송 강화
수익성 개선 등 시너지 마련에 총력

●미니스톱 2603개 점포·12개 물류센터 확보

롯데지주는 21일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가격은 3133억6700만 원으로, 취득 예정일은 28일이다. 이번 인수전에는 라이벌 신세계그룹 이마트24와 앵커프라이빗에쿼티(PE)-넵스톤홀딩스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미니스톱은 1990년 일본 미니스톱의 모회사인 일본 이온그룹이 대상과 손잡고 설립한 미니스톱 한국법인이다. 2019년 대상이 지분을 모두 정리하며 일본 미니스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2018년에도 매각이 추진돼 본입찰까지 진행됐지만 매각가를 둘러싼 이견으로 매각 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도 롯데는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힌 바 있다. 이번 인수에서 롯데는 예비입찰을 거치지 않고 본입찰에 바로 참여했는데, 2018년에 이미 기업실사를 마친 만큼 기존에 확보한 정보로도 미니스톱 기업가치 파악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수가는 2018년 제시한 4000억 원보다는 낮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매각가 2000억 원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롯데는 이번 인수를 통해 미니스톱의 2603개 점포(2020년 기준)와 12개 물류센터를 확보하게 된다. 세븐일레븐의 점포 수는 1만501개로 미니스톱과 합칠 경우 점포 수 1만3104개로 업계 3위를 굳히게 된다. 1, 2위인 CU(1만4923개), GS25(1만4688개)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 점포수가 5169개인 4위 이마트24와는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점포 수가 매출로 직결되는 편의점 업계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체급을 맞추게 됐다"며 "점포 수 증가는 납품업체와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온·오프라인 융합 전략에 활용

롯데는 미니스톱이 시장 초기에 선점한 우수 입지와 경쟁사 대비 넓은 면적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오토바이 충전, 금융, 가전케어, 세탁 서비스 등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니스톱이 보유한 12개 물류센터를 활용해 '퀵커머스(즉시배송)' 전략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30개의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와 더해질 경우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니스톱은 즉석식품 판매 및 배달과 포장 중심의 패스트푸드 전문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편의점 업계의 식문화를 선도해 온 만큼 차별화 매장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롯데 측은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편의점을 온·오프라인 융합 전략에 적극 활용해 온라인 사업 역량 강화에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월 결산법인인 미니스톱은 2020년 3월~2021년 2월 매출 1조7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하락했고, 1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는 과거 편의점 로손과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경험을 토대로 미니스톱과 합병 시너지 마련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또 미니스톱 점주들이 세븐일레븐이 아닌 타 편의점 브랜드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세븐일레븐 점포와 상권이 겹치는 미니스톱 점포도 있는 만큼 효과적인 인수 시너지를 내는 것도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미니스톱 자체가 시장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포가 그대로 세븐일레븐으로 넘어올지 지켜봐야한다"며 "점주들을 붙잡으려면 여러 당근책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거래재개냐, 제2의 신라젠이냐…오스템임플란트 '운명의 날'

거래정지 해제 여부 오늘 결정
실질심사 대상 판정 가능성 커
주주들, 손해배상 소송 준비도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2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정을 앞두고 거래정지로 투자 자금이 묶여 있는 2만 여 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뉴시스

사상 초유의 횡령사태로 2만여 소액주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 해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회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현재까지 거래정지가 된 상황이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기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정지가 계속되게 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과 달리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판정이 나와 충격을 준 신라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거래소의 기업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기를 15영업일 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심사대상에 올라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중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최대 1년간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여기에 기업의 이의신청에 따른 코스닥시장위원회 재심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2년 가까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를 할 수가 없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총 발행주식의 55.6%인 794만여 주를 1만9856명의 소액주주가 갖고 있다. 3일부터 거래정지가 되면서 투자금이 묶인 소액주주들 중 일부는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단체행동까지 나서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도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횡령사건의 손실추정액을 반영해도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공시를 낸 것은 얼마 전 횡령 손실추정액이 2020년 자기자본 대비 108%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에 문은상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기업 영업지속성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지면서 튼튼한 재무구조와 회사의 성장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사건 수사가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 등 현 경영진으로 확대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쇄신을 위한 경영권 교체 등 매각설도 나오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방송통신대 리더스클럽 신년포럼

한국방송통신대 리더스클럽(회장 장재진 오리엔트바이오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신년 포럼을 개최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 유동균 서울마포구청장이 '삶이 행복한 도시 마포', 최창원 청운대 교수가 '조선의 마르코 폴로 최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기술인재 육성 'SPC기업대학' 수료식 진행
"수료 학생 전원 파리바게뜨 등서 일할 예정"

SPC그룹이 20일 서울 신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2021년도 하반기 SPC기업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SPC기업대학은 청년 취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가를 받아 특성화고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제과제빵, 요리, 커피 분야 등의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설립 이래 7년간 10개 전문대학, 3개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고 연 2회, 13회에 걸쳐 총 450여 명을 선발해 교육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왔다. 이번 수료식에는 2021년 하반기 입교한 베이커리학과, 외식조리학과, 바리스타학과 학생 30명이 수료했으며 수료 학생 전원은 파리바게뜨, 라그릴리아, 파스쿠찌 등의 브랜드에서 일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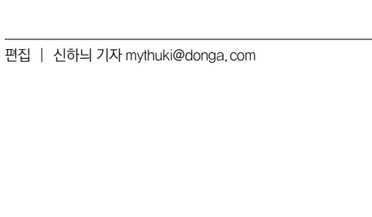
정정욱 기자

전자랜드, 3배 더 주는 '설 맞이 세배 세일'

전자랜드가 31일까지 '설 맞이 세배 세일'을 진행한다. 행사 품목을 삼성카드 포인트로 결제 시 사용한 포인트의 3배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리워드로 되돌려 준다. 행사 품목은 밥솥, 전기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설 명절 선물로 적합한 생활 소형가전으로 준비했다. 2022년을 기념해 22개의 행사 모델 중 하나를 구매하면 배달 앱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주는 '설 맞이 선물전'도 진행한다. 행사 품목은 밥솥, 전기레인지, 청소기, 안마의자, 에어프라이어 등이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강남 삼성빛정신건강의학과, 2월 개원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적 치료 제공"



강남 삼성빛정신건강의학과(원장 허정윤)가 2월 서울 강남역 부근에 개원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보유자가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보고서 및 해석 상담을 제공한다. 브레인 맵을 사용해 환자 상태 및 치료 경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미국 뉴로스타사의 4세대 rTMS 기기를 도입했다. rTMS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도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주요우울장애 환자에게 뇌의 기분을 조절하는 영역에 자기장 자극을 주어 우울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편하게 의자에 누워서 치료가 진행되며 마취나 진정제가 필요하지 않고 치료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진료과목은 정신건강 클리닉의 우울증·공황장애·불면증·생리전 증후군, 집중력 클리닉의 성인 ADHD, 스트레스 클리닉, 노인 클리닉, 소아·청소년 클리닉, 정신분석 치료, 부부 치료 등으로 구성했다. 집중력 검사와 신경인지검사, 정량뇌파검사(QEEG), 종합 심리평가 등의 검사도 있다. 허정윤 원장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적인 진료로 마음속 따뜻한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월·목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이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